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6호

김현수칼럼

스포츠 꿈나무? 나무도 없다

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2024 체육시민연대 정기총회

2024.02.17(토) 오후 4시, 서초사무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한국, 총 메달 17개로 강원 2024 대회 종합 3위 등극...이전 대회보다 9개 증가

김경현 스포츠투데이 기자

한국최초의 여성 스포츠시상

탁구 신유빈, 제34회 윤곡 김운용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수상

김동찬 연합뉴스기자

2020년부터 3년간징계요구 224건 중징계 결과통보 건수 99건...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결정 지연...3개월내 통보해야"

김영신 연합뉴스 기자

대전동부교육청학생 선수들의인성·지성·감성 갖춰주는 멘토로위촉대

펜싱황제 오상욱, '진로멘토·인권지킴이'로 학생선수 성장 도와

이병수 데일리한국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존경하는 체육시민연대 회원님, 그리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변화와 혁신을 꿈꾸는 시민 여러분

체육시민연대는 스포츠가 있는 곳에 모두의 인권이 당연한 나라, 만인이 즐기는 스포츠 세상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늘 격려와 응원 감사드리며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4

체육시민연대 정기총회

일시 : 2024년 2월 17일(토) 오후 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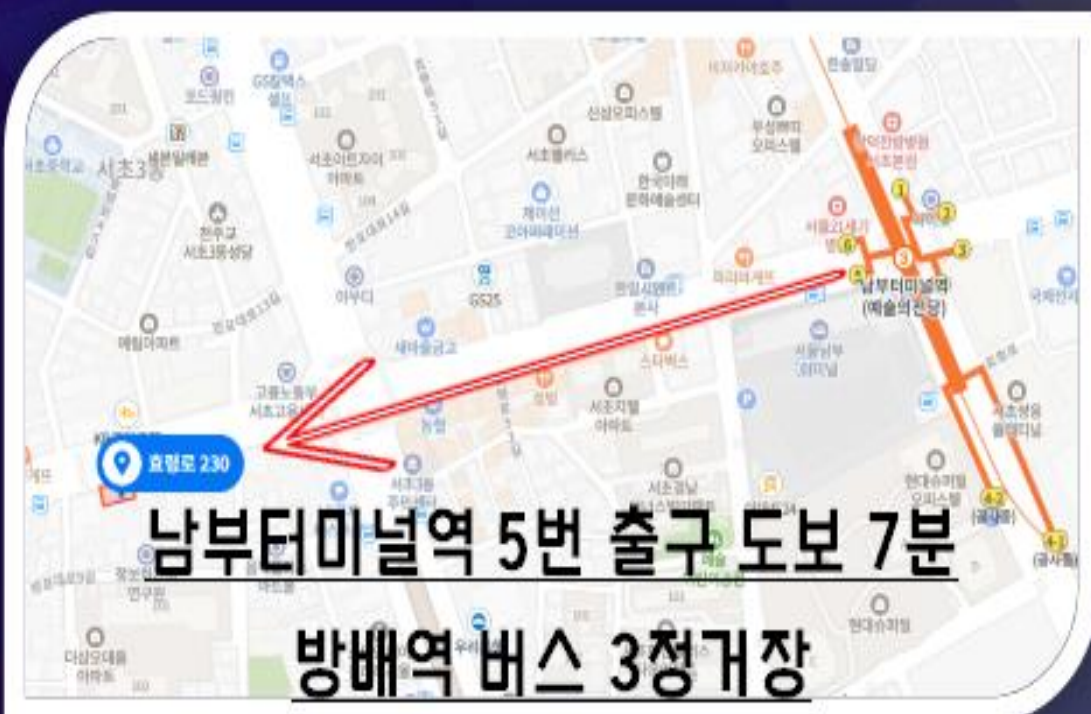
장소 : 체육시민연대 서초 사무실
(효령로 230, 407호)

© 식순

1부 : 정기총회

- 사업 및 회계 보고
- 감사보고
- 2024년 사업 계획
- 임원 선출 및 집행위 인준 등

2부 : 체육시민상 시상식



문의 : 02)2279-8999

[김현수 칼럼] 스포츠 꿈나무? 나무도 없다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한창이다. 국민들은 최근 한국 국가대표팀의 기량이 '아시아의 맹주'라는 위상과 같이 압도적이지 못해 실망하면서도 축구 특유의 극적인 승부를 통해 그 매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중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표팀의 위상은 외국 프로리그에서도 뛰어난 경기력을 과시하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면에 그들의 몸값이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손흥민이나 김민재 선수 한 명이 상대 팀 선수 전체의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사실은 과거 우리 대표팀이 늘 당하던(?) 상황의 반전이라 짜릿하기까지 하다. 그래서인지, 제2의 손흥민, 김민재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은 너도나도 동네 축구클럽에 가입하며 '혹시나' 하는 꿈을 키우는 중이다.

하지만 축구를 제외한 다른 종목을 들여다보면 처참하다. 시골 학교들이 학생이 없어 줄줄이 폐교하듯이 오랜 전통의 학교운동부가 선수가 없어 문을 닫고 있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체육 단체, 체육 전문가들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피치 못할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국제 스포츠 경쟁력이 약화된다, 운동부를 신규로 창단하면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국가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등 돈과 관련한 이야기만 나올 뿐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체육계가 운동부 해체 원인을 학령인구 감소에서만 찾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해결책이 만들어 낼 수 없다. 내부의 문제는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필자부터 내 아이를 운동부 시킬 마음이 없다. 아이가 체육교과 우수상도 자주 받아올 만큼 운동을 좋아하고, 또 잘하는데다, 원했던 적도 있다. 더구나 전공자로서 운동이 주는 이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평소 아이가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에 가벼운 스포츠클럽 정도는 적극 권장하지만, 엘리트 운동부를 안 시키는 이유는 온전히 내부에 있다. 학습권 박탈, 선수로서의 불투명한 미래, 못 미더운 지도자, 입시, 취업 등과의 연관성 등 아이를 운동부로 보내기에 불안한 요소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필자만의 것일까?

교육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는 수년째 운동선수가 차지하고 있다.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란 소리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운동선수처럼 흥내라도 낼라치면 공부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어느 부모가 반길까? 요즘의 부모들이 자식의 미래에 대해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적극적으로 판단해 나간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아직 인생의 선택지가 넘치는 아이들에게 운동부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스포츠꿈나무를 키우는 학교운동부에 꿈을 꿀 나무조차 없는 끔찍한 상황에서 다시 꿈나무들이 자라게 하려면 운동부가 '엘리트 꿈나무 양성의 요람'이라는 소리부터 접어야 한다. '엘리트'라는 소수 정예의 운동기계를 만드는 전략은 구시대적일 뿐 아니라 그 혹독한 시스템에 들어가고 싶은 자원도 남아있지 않다. 학교운동부는 자발성을 전제로 다양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경쟁은 치열하되, 교육적인 목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학업을 우선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운동부에서 학교 안과 밖의 경쟁을 경험하고, 승리와 패배의 교훈을 교육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라면 누구도 운동부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수준 높은 친구들은 마치 국위선양의 모든 것을 책임진 것처럼 지원과 기대를 독식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낮은 수준에서 경쟁하는 친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그에 걸맞은 지원으로 키워져야 한다.

현장에서 운동의 좋은 점이 부각되고, 지금의 관행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없어지면 나중에 그 '학생'이자 '선수'는, 선수로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스포츠의 좋은 점만을 기억하며, 평생 스포츠를 즐기는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는 스포츠가 좋은 문화라는 것을 알기에 학업을 고려하여 축구교실, 태권도장 등을 다닌다. 심지어 자비를 들여 말이다. 학교 운동부 시스템이 다양한 수준의 운동부로 만들어져 있다면 참여 안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말이다.

그리고 덧붙여 체육계는 지원이 부족하다, 엘리트 시스템이 붕괴한다 등과 같이 위기를 조장하고, 지원만 바라는 단편적인 진단도 이제 그만 둘 때가 되었다. 어차피 학령인구가 없어 엘리트 스포츠가 붕괴하고 있는데, 있지도 않은 엘리트 선수 양성에 무슨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이제 그 지원은 오롯이 엘리트 체육 시스템을 탈피하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통해 저변을 넓혀나가는데 쓰여야 한다. 체육계도 이 정도의 자구적인 개혁도 없이 지원만 바라는 근성도 버릴 때가 됐다.



한국, 총 메달 17개로 강원 2024 종합 3위 등극... 이전 대회보다 9개 증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단장 이혁렬)은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종합순위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14개 세부종목의 153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은 빙상에서 3개, 봅슬레이에서 1개, 스키에서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총 메달 17개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쳤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전 2020 로잔동계청소년올림픽까지 쇼트트랙과 피겨 등 빙상 종목에 편중되어 총 8개의 메달을 땀지만, 이번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는 쇼트트랙은 물론 스피드와 봅슬레이, 스키, 스노보드, 여자 아이스하키 등 다양한 종목에서 총 17개의 값진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을 펼쳤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팀을 운영하고, 사전에 안전, 인권, 도핑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선수단이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왔다. 특히 입촌 선수 및 지도자에게 대회 마스코트를 선물하고, 대회기간 중 생일을 맞이한 선수들에게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케이크를 전달하는 등 선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무사히 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한편, 대한민국 선수단은 2월 1일 마지막 경기 일정을 마친 후 강릉 선수촌 및 올림픽파크에서 해단식과 폐회식(기수: 피겨 김현겸 선수) 참가를 끝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14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탁구 신유빈, 제34회 윤곡 김운용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수상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낸 신유빈이 제34회 윤곡 김운용 여성체육대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곡 김운용 여성체육대상 시상식 조직위원회는 1일 "올해 대상 수상자로 신유빈을 선정하고 최우수선수와 특별공로상 등 부문별 수상자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신유빈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전지희와 한 조로 출전해 한국 탁구에 21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선사했다. 신유빈은 윤곡 김운용 여성체육대상에서 2015년 꿈나무상, 2021년 신인상을 받고 이번에는 대상까지 받게 됐다. 최우수선수에는 역도 박혜정이 선정됐고, 우수상 수상자는 여서정(체조), 이다솜(태권도), 김민선(빙상)으로 정해졌다.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도전하는 박인비는 특별공로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그랜드머큐어 호텔에서 열린다.

윤곡 김운용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은 고(故) 김운용 IOC 부위원장이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 여성체육 발전을 위해 1989년 제정한 한국 최초의 여성 스포츠 시상이다.

[제34회 윤곡 김운용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수상자]

▲ 대상 = 신유빈(탁구)

▲ 최우수선수상 = 박혜정(역도)

▲ 우수상 = 여서정(체조) 이다솜(태권도) 김민선(빙상)

▲ 특별공로상 = 박인비(골프) ▲ 공로상 = 황정희(야구)

▲ 지도자상 = 성지현(배드민턴)

▲ 신인상 = 김민주(유도) 김승원(수영) 김예림(스켈레톤) 김태희(육상) 오예진(사격)

▲ 꿈나무상 = 서교림(골프) 송예지(육상/태권도) 신수민(근대5종) 우소민(양궁) 이윤지(수영) 최시연(봅슬레이) 홍효림(태권도)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결정 지연... 3개월내 통보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체육단체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으면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 침해와 비리 사건을 신고받으면 처리 후 해당 민간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한다.

그러나 체육 단체들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지 않고, 경미하게 처분하거나 징계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2020년부터 3년간 징계 요구 224건 중 체육단체가 징계 결과를 통보한 건수는 99건이었고, 이 중 9건은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1년 이상 걸렸다. 26건은 징계 처리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징계 처분이 지연되거나 부적정하게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 요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며 "근거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 체육단체의 산하단체 임원 비위에 대한 징계 사건은 같은 산하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등이 관할하고 있어 공정한 징계 절차 진행이 어려웠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간 체육단체의 산하단체 임원 징계 사건은 해당 체육단체의 직속 상급 단체가 관할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채용 업무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뒤서 운용하도록 권고했다.

펜싱황제 오상욱, '진로멘토 인권지킴이'로 학생선수 성장 도와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학생 선수들의 다양한 진로 모색과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조성을 위해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를 '학교운동부 진로멘토·인권지킴이'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021년부터 '진로멘토·인권지킴이'로 학생 선수의 진로설계와 인권보호를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선행을 꾸준히 보여온 오 선수가 지난달 31일자로 위촉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 재위촉했다.

오 선수는 올해 파리올림픽 대비 국가대표 훈련 참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학교운동부 진로멘토링, 원포인트 레슨 등과 함께 학생 선수들의 인성·지성·감성을 갖추는 성장의 시간을 이어간다는 예정이다.

이어 동부교육지원청은 펜싱 꿈나무들의 경기력 향상과 안전을 위해 대전매봉중에 올해 운동부지도자를 증원 배치했으며 이날 위촉식에서 학교 관계자에게 훈련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오 선수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선수와 소통하며 진로 고민 등을 함께 나누고 인권이 꽃피는 행복한 학교운동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 최재모 교육장은 “지역스포츠 인재와 학생 선수들의 만남의 장을 확대해 국가대표를 꿈꾸는 학생 선수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與, '사격황제' 진종오 영입...한동훈 "문화체육계 이끌어갈분"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5062000001?input=1195m>

서울시, 생활체육 수요 충족 위한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지원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7&idx_800=3515630&seq_800=20508331

거제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해 동계 전지훈련 메카 조성

<https://www.news1.kr/articles/5311939>

오산시체육회·오산한국병원·장애인체육회 '스포츠경기 의료지원' 협약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2051239360717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설 연휴 세종 체육복합시설 미개방...호수·중앙공원은 운영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2096>

파주시 '2024 경기도 체육대회' 자원봉사자 2천명 모집

<https://www.news1.kr/articles/5311937>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에 청소년 복합체육시설 조성된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20511260358027>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시니어건강지킴이" 모집

<https://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108>

대전 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목소리↑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204010000884>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